프리즘

'좌익서적' 단속의 逆說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전국 검찰에 시달한 '좌익출판물 · 유인물 단속지침'으로 밝혀진 단속대상도서 103종의 면면을 꼼꼼히 뜯어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개중에는 '왜 이런 책이 단속돼야 하는가' 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물론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종래의 마구잡이식 판금에서 이제는 비교적 '체계'를 갖춘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利敵'이나 '좌경'이 아닌 '좌익' 출판물이라는 '확고한' 표현부터가 우선 그렇다. 예컨대 이적도서라고 할 때의 그 '적'이 갖는 애매한 포괄성, 그리고 좌'경'이란 표현에 내포된 매카시즘적인 해석의 편의주의 때문에 애꿎은 책들이 수난을 당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좌익의 '혐의'정도가 아닌 명백한 좌익만을 솎아내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말하자면 단속의 확실한 원칙이 제시됐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훨씬 세련됐다고나 할까, 어쨌든 종래에 비해 진일보한 면모를 보인다.

이같은 사정은 검찰이 발표한 목록의 실제적 검토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이번의 금서목록 103종은 거칠게나마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그 한 갈래가 주체사상을 비롯한 일련의 북한 원전류로, 또다른 한 갈래는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주장한 책들로 나타난다.

이를 뒤집어보면 북한의 선전선동을 담거나 현단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부추기는 책이 아닌 한, 이른바 '이념서적'의 출판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즉, 그간 급진적으로 넓어진 우리 출판의 외연이 비로소 정부당국에 의해 공식화됐다는 점에 이번 검찰발표의 역설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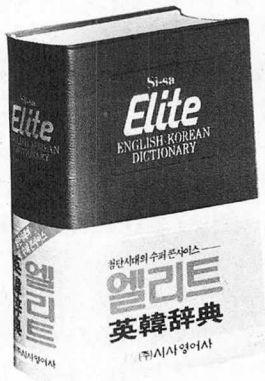
그 아쉬움의 한 끝에 이번 조치도 결국은 '덜 나쁜' 정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놓여 있다. 공권력에 의한 출판행위의 규제는 그것이 아무리 너그럽더라도 언제나 '次惡'일 뿐, 결코 '最善'은 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또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정부당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철거돼야 할 잠깐동안의 차단막인지는 우리 사회의 개방속도와 체제의 자신감과 관련해 그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강철주 기자

독서퀴즈

다음문제의 정답을 89년1월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4호(90년 1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 1

시와 술과 거문고를 즐겨서 이른바 '三好先生'이라 자처했던 고려때의 문학자로서 白雲小說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1. 李奎報
2. 李仁老
3. 李　穡

문제 2

사람의 나이 70을 일컬어 '古稀'라 하는데, 이는 唐나라 시인의 七言詩 '人生七十古來稀'에서 딴 것이다. 이 시인은 누구인가.

1. 李太白
2. 杜　甫
3. 陶淵明

문제 3

영국의 시인 랜더(1775-1864)가 "그의 서사시 중에서 특히 아담과 이브의 나체미 묘사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시인도 묘사할 수 없다"고 격찬한 작품은 무엇인가.

1. 단테의 「神曲」
2. 밀턴의 「失樂園」
3. 괴테의 「파우스트」

문제 4

미국의 소설가이며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으로서, 서양에서 싫어하는 「검은 고양이」를 소설로 쓴 사람은 누구인가.

1. O. 헨리
2. A. 크리스티
3. E.A. 포

제50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0호(11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87통, 이중 정답자는 58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② 玆山魚譜

조선 순조 때(1815) 丁若銓이 흑산도 유배중에 지은 것으로 근해 수산물의 이름 · 분포 · 형태 · 습속 등을 기술한 책. 3권 1책.

2. ② 花潭集

조선 초기 학자 徐敬德의 문집으로 '原理氣' '聲音解' '鬼神生死論' 등이 수록돼 있다. 1권1책.

3. ③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시인이며 실존 철학의 선구자인 니체(1844-1900)의 主著로서 그의 사상의 원숙을 보인 작품.

4. ② 투르게네프

러시아의 작가로 사실적인 자연묘사와 예민한 심리관찰로써 러시아의 田園을 그렸다. 「아버지와 아들」 「첫사랑」 등의 작품이 있음.

당첨자

최이준(서울 노원구 월계2동 13. 미륭아파트 22동 102호)
신금만(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학적과)
김용균(대구시 북구 복현동 245-7. 41 / 5)
김영석(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07-4)
한보환(경기도 과천시 원문 주공아파트 263-507)

출판저널

통권 제52호/1989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權正子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 · 광고——崔兌源 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자문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 · 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 · 성명 · 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